

시편 묵상 21
(9/15/2023, 금)

찬양: 428(488)(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 읽기: 시편 18:35-50

말씀에 대한 이해: 앞부분에서 지형지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기술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노래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1) **메시아의 승리.** 본문에는 다윗의 승리가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다윗의 승리만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승리로 해석한다. 학자들은 시편 18 편이 ‘승리자 메시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으로 해석한다. ‘승리자 메시아’ 테마는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왕들의 통치 사이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을 무찌르고 승리한다는 것이다.

본문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으로 나타나 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를 “내가” 혹은 “나”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냈다. 시 18:37-38 - 37.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38.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구절은 다윗은 승리한 한 개인이 아니라 왕으로 드러낸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인 자기가 대적들을 무찔렀다고 노래했다. 시 18:39-40, 43 - 39.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0.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 버리게 하셨나이다 43.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름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본문은 다윗을 왕으로 묘사하고 그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워 이긴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때의 왕은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승리자 메시아’ 테마를 주장한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꺾으시고 승리하시며 이 땅에 온전한 구원과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의 승리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승리와 통치를 선포하고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승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은 자신이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된 것임을 분명히 선포했다. 시 18:35-36, 46-48 - 35.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46. 여호와와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7.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48.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다윗은 승리의 배후에 주님이 계셨고,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믿으며 선포하고 찬양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고 쌓은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시고 옆에 계시며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한다. 시 18:49 -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들 중에서” 라는 표현은 ‘이방 나라들 안에서’ 혹은 ‘가운데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방 나라들과 함께’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 다윗의 찬양은 자신만의 찬양, 이스라엘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함을 말함으로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임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후손들에게도 임할 것을 믿었다. 시 18:50 -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자신을 상징한다. 다윗은 보잘것 없는 가난한 목동 출신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서 자신이 받은 엄청난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했다. 다윗의 고백과 찬양 속에는 비천한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세워주신 주님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들어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죄악과 허물, 우리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늘 기억하며 그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세우시고 올려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다윗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후손에게도 영원토록 임할 것이라고 노래했다. 다윗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과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가문 전체에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그 은혜가 미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윗을 상징으로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한다. 본문은 '승리자 메시아' 테마를 담으면서 다윗을 통해 메시아를 드러내는 예언적 메시지도 선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승리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승리를 발견하며,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한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승리의 이유, 승리의 주체가 되신다.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자. 그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앞세우면서 나아가자. 비천한 자신을 세워주신 은혜를 기억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자. 나를 살리시고 나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까지 챙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 자신과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가자. 시 18 편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묵상하기: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우리 존재의 배후에 계시고 우리의 승리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2.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최아브라함(파키스탄), 태일(이란, 튀르키예), 하영광(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3. 지진과 홍수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로코와 리비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게 하시고 그 땅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시옵소서(시 19:14).